

# 포스코퓨처엠, 전구체·음극재 생산 확대... 포항에 1.7조 투자

화유코발트·경북도·포항 공동 전구체 생산비율 14% → 73% 음극재 8만여t → 32만t 확대

포스코퓨처엠(옛 포스코케미칼)이 포항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3일 화유코발트,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극재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공장은 2027년까지 포항 블루벨리산단 내 26만7702㎡(약 8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왼쪽부터),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천 수예화 화유코발트 동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3일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료를 가공해 제조하는 양극재의 중간소재로 국내 생산비중이 약 13%에 불과하다.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확대가 필수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역시 전구체 원료 중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아 내재화가 중요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원료 조달에 강점이 있는 화유코발트와의 니켈·전구체 투자로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에 양극재 생산기지

를 확대해 전구체의 자체 생산비율

을 14%에서 73%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포항에 음극재 생산공장 추가 건설도 추진한다. 포항 블루벨리산단 내 19만9720㎡(약 6만평) 부지에 2025년까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과 충전 성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세종에서 7만4000톤의 천연흑연, 포항에서 8000톤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음극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2030년 32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고성능화에 맞춰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 흑연계 뿐만 아니라 충전 성능 향상 등에 필요한 실리콘·전고체 배터리용 리튬메탈 음극재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부모부담 경비’ 지원

울산시가 오는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이나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최대 14만 원(연 168만 원)까지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4억 원, 2025년 141억 원이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협의해 분담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대전시

#### 지역소주에 대덕특구 홍보

대전시가 지역 소주인 ‘이제우린’ 40만 병에 대덕특구 50주년 홍보 문구를 넣는다.

“초일류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이 만듭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는 대전시와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시와 대전의 향토 주류기업 맥키스컴퍼니가 2일 ‘이제우린 보조상표 후원식’을 열었다.

이장우 시장은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시의 중요한 상생협력 파트너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선도 기업”이라며 “홍보 후원을 통해 대덕특구 50년에 대한 시민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 신안군

#### ‘신안 피아노 연주회’ 개최

신안군이 오는 12일 자은면 다목적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신안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자은면 다목적회관 준공을 기념하고 10월 피아노 축제 중간에 ‘피아노의 섬’을 알리는 첫 공연이다.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폴란드의 ‘국립 쇼팽 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한 피아니스트 아그니에슈카 프제미크 브리와의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의 다카시 하마노, 국내 정상급 테너 최승원과 소프라노의 김아람, 김자영 피아노 연주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신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해남군, 영산강 III-2지구 33년 만에 간척산업 마침표

총 면적 126만 4000㎡ 등록 약 6775만㎡ 공유수면매립 완료

해남군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영산강 III-2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한 토지는 산이면 부동리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들녘 농지 67필지 10만9,382㎡와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 55필지 25만 5,050㎡로 총 면적은 126만 4,000㎡이다.

특히 198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 조성 및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실시한 6,774만9,000㎡에 대해 33년만에 간척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사업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번 토지대장 등록으로 해남군 토지 통계는 44만3,556필지 1,045km<sup>2</sup>로 전년 대비 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남 최대 면적의 타이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농지면적도 358km<sup>2</sup>로 크게 늘어나 교부금 지원기준 등 각종 면적 통계 및 정책 자료에 활용돼 전국 최대 농업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대장 등록 완료로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남해군, 국가산단 오염 피해 대응한다

광양만권 대기오염 대응 실무협의체 정례회·도민 권익보호 계획

광양·여수 국가산단 등의 오염 원인 배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남해군·하동군 등 주민들을 비롯해 경남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본격 운영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관리 및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단체 행정지원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회, 실무위원 추가 구성, 경남 거버넌스 관련 논의, 전국단위 공동대응을 위한 제안 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유사 피해를 호소 중인 전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남도·사전·남해·하동이 포함된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으로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회할 계획”이라며 “제안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자료 축적 및 요구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니 의견수렴의 창구로 실무협의체를 잘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경주시, 황성공원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

지속 지도 점검·예찰 활동 이어가

경주시는 지난 2일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총흔담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

이들 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막걸리 등을 팔며 10여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



경주 황성공원 내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 전후 사진.

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 시는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노점상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단속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 목포시, 청년 겨냥 글로벌 마케팅 박차

미디어 촬영 색도... 쾌거 이루기도 日 겨냥한 KCON 행사 참가 예정

목포시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시장 슬로건 아래, 청년을 겨냥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에 맞춰시는 적극적인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트렌드에 적절한 마케팅은 관광객들의 목포방문을 유인하고 있으며 목포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매체 촬영 섭외·지원 등 문이 지속적으로 쇄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자체 제작 웹드라마 ‘어느날 소나기’가 오는 5월 개최되는 L A 웹페스트에서 5개 부문 수상 후보로 공식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

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남 방문의 해 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해 관광 홍보 버스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방문객에게 소개해 목포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또한, 전남도와의 협약으로 전세기로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목포를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태국과 베트남 관광객은 현재까지 1,200여명이 넘게 다녀갔고, 올 한해 동안 베트남 나트랑, 하노이, 호치민에서 전세기로 1만여 명이 전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5월에는 K-문화 콘텐츠 수요가 높은 일본 젊은 층을 겨냥한 KCON 2023 JAPAN 행사 참가도 예정돼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 거창군

#### 스마트팜 신·개축 지원자 모집

거창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4~20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 제어가 가능한 ICT 기술도입 필요성의 증가로 시설원예 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환경제어 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특작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